전남 농특산물 활용 K-차음료 '콤부차' 아시나요

전남도농기원 차산업연구소 '아따콤부차' 4가지 제품 출시

정아영 연구사 4년간 연구성과 보성·구례 등 전남농산물 사용 워터젤리·분말 신제품 곧 출시 농산물 활용 콤부차 개발 주력

수입산 의존 장벽을 넘어 순수 국산 콤부차(Kombucha)가 탄생돼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콤부차는 중국에서 유래 했으며 건강 효능이 가미된 달달하게 만든 홍차음료를 말한다. 과즙, 향신료, 과일, 착향료 등 추가되기도 한다.

마침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가 전남 농특산물을 활용한 아따콤부차를 내놨다. 아따콤부차 브랜드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뜻과 함께 전남 사투리 '아~따'가 합쳐진 뜻이다. 아따콤부차 유자, 아따콤부차 비트, 아따콤부차 생강, 아따콤부차 우엉 4가지 제품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전남체전 선수단 공식 음료로 지정되며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차산업연구소가 콤부차홍차워터젤리, 콤부차 분말 제품 등을 추가 개발했다. 전남산 농산물 재료만을 사용한 콤부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 콤부차 시장에 K-콤부차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산업연구소가 출시예정인 콤부차 분말 제품, 콤부차홍차워터젤리.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가 개발 완료한 아따콤부차.

정아영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연구사가 아따콤부차를 들어보이고있다. 정 연구사는 2019년 콤부차 개발 착수, 같은해 10월 콤부차 발효기술을 최종 개발했다.

● 전남농산물 생산 '아따콤부차' 탄생

"전남 22개 시·군 농산물을 발굴해 차음료로 재탄생시켜 전남을 대표하는 차음료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아영(32)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연구사의 각오다.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54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 연구소.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 '미래 차(茶)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요람'이라고 쓰인 연구동이 눈에 띈다.

연구동으로 들어가 보니 원심분리기에서 '윙~윙' 굉음을 뿜으며 비커에 담긴 액체 효소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원심분리기 한편에서는 정 연구사가 차 음료에 쓰일 발효 용액을 실험 기구로 뽑아내느라 분주하다.

정 연구사는 2019년 1월 콤부차 연구개발에 착수, 같은해 10월 홍차비트 콤부차 발효기술을 개발했다.

도내 스타트업 가공업체인 ㈜씨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아따콤부차' 브랜드를 구축,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유통을 본격화했다.

콤부차는 차 추출물과 설탕을 스코비 미생물로 발표시킨 건강음료로 간 기능개선과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코비 미생물로 인해 발효 중 생성되는 유기산, 탄산 등으로 산미와 청량미가 더해져 새콤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아따콤부차 유자 △아따콤부차 비트 △아따콤부차 생강 △아따콤부차 우엉이 정식 출시 됐다.

4가지 제품들은 보성산 녹차·홍차, 고흥산 유자, 해남 비트, 구례 생강·우엉 등을 계약 농가로부터 재료를 수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콤부차는 차 추출→당 혼합→콤부차종초액(스코비)첨가→발효→여과→향미재료첨가→저온숙성과정을 거치면 제품화된다. 콤부차 제품들은 신세계몰 등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 연구사가 건넨 유자 콤부차를 시음해 보니 유자의 상큼함과 스코비 미생물로 발생된 탄산감이 입안을 감돌았다.

4년간의 연구로 콤부차가 탄생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 실증 위주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 연구사는 "실험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실증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결과다"며 "실증 사업들을 통해 콤부차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즉각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기반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순수 전남산 재료 사용 콤부차 탄생

정 연구사가 콤부차를 개발하 이유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콤부차의 원료가 대부분 수입산 재료를 사용해 판매되고 있어서다.

정 연구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콤부차 제품은 레몬, 히비스커스 등 이국적인 재료를 사용해 단순 향미만 첨가한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남 지역 특산물들을 사용해 차의 기능성 성분이 유지되면서 유기산을 생성하는 콤부차 발효액을 연구·개발해 4가지 제품을 내놓게 된 것"이라 밝혔다.

수입산 재료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전남산 재료를 사용한 콤부차가 만들어지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반 차음료와 달리 발효조건이 까다로웠던 것.

정 연구사는 "일반 차음료는 순수 물만 사용해 추출하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가 쉽다"며 "반면 콤부차는 제품별로 발효·숙성 과정을 거치는 소요시간이 다르다. 순수 전남만의 재료로 만든 콤부차를 내놓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량생산할 수 있게끔 발효조건을 연구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 전남산 콤부차 지속 개발 몰두

유자 콤부차·생강 콤부차 2가지 제품은 오는 10월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선수단 공식음료로 선정된 바 있다.

콤부차 4가지 제품에 이어 최근에는 △콤부차홍차워터젤리 △콤부차 분말 제품 등이 개발 완료됐다.

콤부차홍차워터젤리는 순수 보성산 홍차를 재료로 사용, 올해 1분기 기술이전될 예정으로 시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콤부차 분말 제품은 유자, 블루베리, 매실 3가지 종류로 나눠 물 한잔 250㎖에 콤부차 분말 스틱 1포를 넣어 섞어주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분말제품은 지난해 실용화 테스트 및 기술이전을 마쳐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2가지 신제품 개발에 안주하지 않고 정 연구사는 전남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할 방침이다.

정아영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연구사는 "국산 콤부차 품질을 향상시키는 미생물을 개발해 순수 토종 한국 콤부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콤부차화할 수 있는 전남 농산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제품화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조진용 기자

전남농기원 '축산악취&탄소중립' 공모사업 국비 30억 확보

한우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와 농촌진흥청의 '미생물 활용 반추가축 발효사료 제조기술 개발 및 급여효과 구명' 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해결하고 전국 최대 곡물·조사료 생산지인 전남의 유용자원을 활용해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 등 저탄소 그린 축산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해 외부전문가 평가단의 과제계획서 심사와 대면 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근 과투입 축산업 생산구조로 인해 냄새·분뇨처리에 관한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축산업 규모화와 혁신도시 조성 등 도시화로 인한 축산악취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축산분야는 2030년 온실가스 30% 감축과 저메탄 사료 30% 보급(2050년 100%)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환경친화 축산모델 조성을 위해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기술을 고도화해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축산농가가 밀집된 마을단위에 미생물 농장 구축과 악취·미세먼지 제어, 분뇨 처리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융·복합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사료 섭취량과 가축 분 질소 발생량을 줄이는 미생물과 바이오 소재개발로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사료비 절감 정밀 사양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농기원-순천대-함평축산농협-힐링파머스, 저탄소 사료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

전남도농기원 제공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축산냄새 저감 연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악취 저감과 돼지 소화 효율 향상 미생물 개발·보급 △개발한 미생물과 환경공학 기술을 접목한 환경개선 우수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해 도내 양돈농가 실증결과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83%, 황화수소 92%, 복합악취 65% 감소의 효과를 확인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축산악취·분뇨처리·온실가스 감축 등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및 관련 기업과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정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